



보도시점 2023. 11. 14.(화요일) 배포 2023. 11. 13.(월요일)

재외동포청, 『제25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발표

- 시 이병석(미국) ‘아버지 도날드’, 단편소설 차준희(중국) ‘노강(怒江)’, 수필 김태진(파나마) ‘오늘도 맛있게’ 등 총 6개 부문 33편 선정

□ 재외동포청(이기철 청장)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문학적 감성과 향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3편을 선정, 발표했다.

○ 성인 부문 대상

- 시 : 이병석(미국), ‘아버지 도날드’
- 단편소설 : 차준희(중국), ‘노강(怒江)’
- 수필 : 김태진(파나마), ‘오늘도 맛있게’

○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 중고등부 글짓기 : 주희(독일), ‘다름을 낭독하다’
- 초등부 글짓기 : 손한빛(미국),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

○ 한글학교 특별상(2개교) : 게인스빌한국학교(미국),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독일)

□ 금번 공모전은 9. 11.(월)부터 10. 3.(화)까지 총 6개 부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수필, 청소년 글짓기(초등 & 중·고등)에 총 35개국 279명 707편이 응모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 심사위원들은 “재외동포 문학도의 거주 권역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로서의 성격이 더해져 재외동포문학상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문학상은 지난 25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수상자들이 모국 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도 하고 있다.” 며 “재외동포들의 한글문학 창작활동 장려를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시상식은 연말 각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품집은 12월 경 발간 및 배포 예정이다.

붙임 :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명단.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책임자	서기관	이명재	032-585-3207
		담당자	주무관	김은혜	032-585-3212

2023년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명단

《총 33편(성인 21편, 청소년 12편,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시	성명	국가	작품명
대상(1명)	이병석	미국	아버지 도날드
우수상(2명)	강매화	중국	외할매 씹지
	박영	아르헨티나	까마중과 어머니
가작(3명)	강정희	독일	어머니
	민명숙	호주	거미의 터
	조현숙	미국	그 곳에는
단편소설	성명	국가	작품명
대상(1명)	차준희	중국	노강(怒江)
우수상(1명)	이강천	미국	일곱 빛깔 무지개
가작(3명)	박은숙	캐나다	바다로 가는 길
	심재훈	미국	강물속의 반지
	이윤선	네덜란드	북경의 기묘한 밤
체험수기	성명	국가	작품명
우수상(2명)	배정희	태국	그땐 힘들었었지
	안미혜	미국	꽃핀
가작(2명)	김형석	인도네시아	나에게 인도네시아란?
	스캇리	미국	코로나 후유증
수필	성명	국가	작품명
대상(1명)	김태진	파나마	오늘도 맛있게
우수상(2명)	류일복	한국	그리운 떡메질 소리
	조사라	미국	거미의 집
가작(3명)	권영경	인도네시아	그녀들
	백경혜	미국	친정
	임하나	미국	꽃 파는 남자
청소년 글짓기 초등 부문	성명	국가	작품명
최우수상(1명)	손한빛	미국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
우수상(2명)	서하임	태국	세 달 동안 굴뚝에 사는 쥐
	임정윤	중국	코리안 걸로 우뚝 서다
장려상(3명)	강민지	스페인	단 하나의 특별한 작품
	박경탁	카자흐스탄	학교생활과 친구
	임지민	중국	평생 중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인 어린이입니다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성명	국가	작품명
최우수상(1명)	주희	독일	다름을 낭독하다
우수상(2명)	김교윤	인도네시아	매듭으로 연결된 인연을 매듭짓다
	한태일	미국	나의 한국어 학습과 체험
장려상(3명)	김주환	미국	나는 미국인 한인 교포 2세 김주환 Samuel입니다
	신아현	우즈베키스탄	당신이 원하는 그곳을 향한 발판, 그것의 가치
	윤에서	독일	언니! 날 안아줘서 고마워!
한글학교 특별상	국가	학교명	
	미국	게인스빌한국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	